

又玄先生 三十周忌를 맞아

1

세월의 흐름은 참으로 빠르다. 又玄선생의 三十周忌를 맞아 더욱 그같은 감회가 깊다. 선생께서 開城博物館 舍宅에서 발병하신지 한달이 못되어 一九四四年 六月에 永眠하시던 그날이 어제와도 같은데 벌써 긴 세월이 흘렀다. 개성박물관의 사무실을 겸한 서재에서 붓을 들고 쓰러지시던 선생의 마지막 모습과 자신이 겪었던 그날의 추억이 모두 생생한데 오늘 선생의 東海碑를 세우고 특집호를 마련하면서도 실감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솔직한 심정이다.

선생의 一生은 매우 짧았다. 그러나 四十平生의 생애에서 선생이 몸소 보여주신 삶과 그에 따르던 研學의 길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더욱 부각되고 한층 빛나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한사람만의 사사로움이 아닐 것이다. 선생이 일찌기 雜誌社 設問에 대답하시면서 「나는 F A U S T 같은 俳優가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다시금 떠오른다. 그리고 또 「丈夫의 一生인데 어찌 헛되게 보내랴」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발병하시던 그 순간까지 冊과 붓을 놓지 않으시던 선생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선생의 엄청난 學問에의 정진과 휴식을 모르시던 探究에서 이같은 선생의 두가지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三十年의 세월이 거침없이 흘렀건만 오늘에 이르러서의 悔恨은 하늘이 선생에게 내린 壽福의 인색함만이 아니다. 그것은 선생이 그 짧은 생애에서 착수하고 이룩하신 學問의 길이 아직 도 크게 열리지 못하고 깊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오늘에 대한 것이다. 선생은 누구보다 먼저 이 學問에 착수하시고 그 領域에서 寸步의 離脫이 없이 오직 이 길 위에서 精進만을 견지하시던 그 모습에서 「丈夫의 一生」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서 선생의 빛나는 學續에 대한 추앙에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선생의 생애에서 스스로의 감동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여 왔다. 선생은 스스로 선택하신 그 학문의 길에서 생명의 참뜻을 이룩하였으며 동시에 그 길에서 天賦의 忠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선생이 처음 착수하시고 애써 더듬으시던 그 길은 오늘날도 그대로 後學의 精進과 研磨를 기다리는 똑같은 歷路임에 틀림없다. 先驅者의 길을 스스로 견고히 결심하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으며 마침내 그 길 위에서 쓰러진 先覺者의 수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으로 처음 착수한 至難의 일이며 형극의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생의 學問은 우리나라 古代美術연구의 기초적 作業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아무도 아니 돌보던, 아니 오래 忘却되어 오던 曠野에서 開拓者의 所任을 다한 사람이 바로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겨레와 自我의 이 領域에서의 깨달음이 선생의 慧眼과 聰明과 獻身을 얻어 비로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사실은 누구도 다시 異議가 없을 것이다.

2

선생이 선택한 그 길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고난의 길이었다. 선생은 이같은 고난을 스스로 豫感하시면서 그와의 대결과 연구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그것은 오히려 『피로써』 『피를 씻는』 惡戰苦鬪를 치루어 『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苦心慘膽 碎身粉骨하여 죽임으로써 피로써 生命으로써 얻으려 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주고싶다하여 간단히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朝鮮美術文化의 몇날 성

格」一九四〇年 遺著「韓國美術文化史論叢」所收)

선생의 이 말씀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느껴왔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가슴에 새기고져 애써왔다. 아마도 이보다 더한 極限의 表現은 다시 없을 것이다. 최후의 勝利를 위한 決戰을 앞둔 勇士들에게나 주어질 말이라고 할까. 피로써 피를 씻는 惡戰苦鬪를 치려서 피로써 얻게 되는 그 길에 선생이 스스로 선택하신 이 學問에의 길이 아니었던가. 苦心慘膽과 碎身粉骨의 精進에서 우리는 또 깊은 믿음의 昇華마저 느끼는구나. 나아가 선생은 「죽임으로써, 피로써, 生命으로써」라는 표현으로서 이 學問에의 獻身을 다짐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곧 선생 자신이 친히 보여준 學問의 길이며 또 그 삶의 참모습이었다고 느껴왔다. 그곳에는 緊迫이 있다. 아니 一瞬의 躊躇마저 개재할 특이 없으며, 잠시 彷徨조차 쉽게 허용되지는 않는다. 숨이 달릴 對決과 苦鬪만이 오직 있을 따름이다. 만일 이같은 緊張에서 벗어나 碎身粉骨의 경지에서 떠날 때 「그것은」인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참으로 「그것은」 「죽임과 피와 生命」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이 학문연구의 길에서 보여주신 그 精進을 선생은 이같은 表現으로써 志向을 삼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미 決定된 오직 하나의 길이요 좁은 門으로 통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스스로 말씀하신 이 길 위에서 마음과 목숨을 불태웠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선생 스스로 天職으로 삼았던 이 학문에서의 研鑽의 참모습이며 그 終結이었다고 하겠다. 선생의 이 글을 자주 인용하면서 너무나 迫眞한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때마다 돌이켜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다. 선생이 이 글을 쓰신지 이제三十年이 훨씬 지났으나 이 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선생의 學問을,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 「丈夫의 一生」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

3

선생은 韓國美術史의 연구를 자신의 天職으로 삼으시고 위에서 引用한 글에서와 같은 精進의 한길 위에서 스스로의 所願을 다 이루지 못한 채 別世하시었다. 그것은 先覺者의 모습이며 바로 그 길이기도 하였다. 선생께서는 우리 美術史의 完成을 「나의 오직 하나의 所願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선생 別世後 오랜 歲月에 걸쳐 선생의 遺稿를 整理刊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도 또한 이같은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선생의 遺稿一節에는 다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朝鮮美術史의 出現을 要望하기는 小學時代부터였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 스스로의 願成으로 轉化되기는 大學의 在學時부터다. 以來 「創造의 苦」는 날로 깊어간다……나의 朝鮮美術史는 「비니스」 誕生이 天廣海闊한 貝舟속에서 天使의 嚙曉한 伴奏을 듣는 樣과는 너무나 멀다.

七日을 爲限하고 宇宙萬象을 創造하던 創造主의 奇蹟的 快感을 갖지 않았다. 光明과 싸우는 Mephistophales의 苦悶相에 가깝다. 難於上青天이라는 것도 나의 學難의 面相이다. 잘못하다가는 苦悶속에서 燒失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이와같이 스스로 말씀하신 「學難」에 선생은 그 생명을 다 하시었으며 그 자신이 예언하신 「苦悶속에서 燒失」되고야 말았던 것이다. 別世하시던 다음해 선생이 마지막 病床에서 여러차례 말씀하시던 해방의 날이 찾아왔고 이 나라의 新生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이 일찌기 결단하시었던 그 길을 따르고져 하였으며 그 후 여러 同志가 한곳에 모여 우리의 학회가 이루어져서 벌써 十五年의 年輪을 쌓았다.

이제 先生 三十周忌를 맞아 다시 모두의 고마운 뜻을 모으고 번번히 못한 學報를 마련하면서 몇마디 선생이 남기신 말씀을 옮겨 이 기념호의 머리말을 대신하려고 한다. 삼가 선생의 溥福을 빌며 깊은 學恩을 오늘에 새겨서 오직 이 학문에의 精進만을 스스로 다짐하고자 할 따름이다.

一九七四年 十二月 六日

代表委員 黃 壽 永